尹 "나토서 각국 정상 만나보니 국제정치 현실 더욱 실감"

尹, 나토 회의에서 30명 가까운 정상들과 만나
서방 국가들과 네트워크 강화, 세일즈 외교도
尹 "한국 미래 먹거리 해당 분야에 달려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외신이나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국제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정치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는 소회를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30명에 가까운 정상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 10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등 16개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를 계기로 서방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은 물론, 유럽 여러 나라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도 공을 들였다.

강 대변인은 "양자회담 또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 대부분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며 자국을 방문해달라고 했고, 윤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을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원전과 녹색기술, 반도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관련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는 소회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날 스페인 기업인들과의 오찬 행사도 가졌다. 스페인 기업인들은 재생에너지, 환경산업,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양국 기업이 함께 제3국에 진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한 스페인 기업인은 "마드리드에 온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스페인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동포 간담회도 가졌다. 스페인 단원들로 구성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한국어 발음으로 '보리밭', '밀양아리랑', '우리의 소원' 등의 노래를 부르자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동포 간담회에는 고(故) 안익태 선생의 셋째 딸 레오노르 안 씨도 참석했다. 그는 스페인 동포 사업가가 매입해 국가에 기증한 고 안익태 선생의 유택에 거주하며 기념관을 관리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국힘 "野, 검수완박법 정당하면 헌재 심판 꺼릴 이유 없어"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이 정당하다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검찰 수사 기능 축소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박탈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지, 위장 탈당으로 국회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고, 상임위와 관련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 표결되는 등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 검수완박법의 연장인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는 모두가 알고 있듯 원 구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며 "이들 좌표 부대, 문자 부대의 두려움에 눈감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가 해야 할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최이슬 기자

민주 최고위원, '10명+α ' 출마…대표·최고위원 '줄투표'되나

자천타천 후보군만 '10명+α'…출마 러시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97기수론' '어대명'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역시 소리없이 달아오르고 있다.

친이재명계(친명)과 비이재명계(비명)을 막론하고 출마 러시가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투트랙' 선거 성격상 당대표의 러닝메이트격 취급을 받아온 최고위원의 경우 이번에도 대세론에 따른 '줄투표'가 반복될 지 주목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10명 안팎의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초선에서만 김남국, 고민정, 양이원영,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탄희, 장경태, 한준호 의원 등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꼽힌다.

7인회 일원인 최측근 김남국 의원 외에도 양이원영, 이수진, 한준호 의원 등 초선 후보군 중 대부분이 친명계다. 이재명 의원을 전폭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통해 불리한 체급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재선에서는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김병기 의원이 주위의 권유를 받고 있고, 광주·전남 의원들 사이에선 '호남 몫' 최고위원 후보를 내기 위해 송갑석(광주), 김승남(전남) 의원을 놓고 교통정리 중이다.

최근 3선 의원들도 회동을 갖고 서영교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3선 모임은 친문 도종환 의원이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에 "중진들은 너무 초선 중심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3선 정청래 의원도 지난달 21일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대표 도전을 시사했지만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정청래 최고위원' 그림을 많이 원하고 있다"고 해, 이 의원이 출마할 경우 최고위원으로 선회 여지를 두는 모습이다. 후보군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예비경선(컷오프)'과 '여성 후보', '줄투표'가 향후 최고위원 선거를 출렁이게 할 변수로 꼽힌다. 우선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성격상 통상 입후보자가 7명을 넘을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1차 후보 압축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2020년 전당대회의 경우 강성 지지층에서 인지도가 높던 이재정 의원이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컷오프돼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민주당 당규는 득표율 상위 5명 안에 여성 후보가 들지 못 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가 최고위원에 입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전당대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유일한 여성 후보로 일찌감치 최고위원 당선을 확정지었지만 득표율 5위를 기록하며 자력으로 지도부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여성 후보로 서영교,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 등 3명이 나와, 여성 최고위원이 복수로 탄생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최대 변수는 '줄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와 가깝거나 동반 당선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여겨지는 최고위원 후보를 매칭해 전략적으로 몰표를 주는 탓이다. 지난 2020년 정기 전당대회 때는 친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유력 대선주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면서 지지자들이 '1·1·8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오유나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